

브로드캐스팅은 저물고 개인 방송 시대가 밝아오다

필자가 기자 초년병 시절에는 기사라는 것은 회사 사무실에서만 쓰는 것으로 알았다. 한번은 취재 현장에 나갔다가 마감 시간에 쫓겨 공중전화로 기사를 사무실에 있는 선배에게 불렀던 기억이 선명하다. 그로부터 14년이 지난 지금, 하루 수십 통의 보도 자료가 이메일로 쏟아져 들어오는 것을 처리하느라 잠시 자리를 비우기가 겁이 나고 토요일이건 일요일이건 한밤중이건 새벽이건 일이 있으면 어디서라도 기사라는 물건을 인터넷으로 찍어내야 한다.

인터넷 시대, 기자로 산다는 것

외국에 나가있는 특파원들도 고달프기가 국내나 마찬가지다. 회사 데스크들이 수시로 케신저로 연락을 해서 '기사만 쓰지 말고 사진을 찍어라', '동영상은 왜 안 쫓가냐며 시도 때도 없이 쫓기 때문이다. 결정적으로 올 들어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를 보면서 "이제 정말 언론인으로 밥 먹기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인터넷 개인방송 서비스인 아프리카TV에서 일반인들이 뉴스를 실시간으로 생중계하고 있으니, 다른 언론사기자들한테 '물먹는' 것도 열 받는데 이제는 일반 국민과도 뉴스 경쟁을 벌여야 하는가 말이다. 중요한 지면을 쫓겨 기자생활의 넋두리나 늘어놓으려는 짓은 아닌데 서론이 길었다. 필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정보통신 발달에 따른 미디어, 특히 방송의 변화다.

방송(broadcasting)은 '넓게 뿌린다(broadly cast)'는 뜻에서 연유했다고 한다. 방송의 즉시성(송신과 수신이 동시점에 이뤄지면서 즉시 시청자에게 도달함)과 광역성(전파가 일단 발사되면 동시에 동일 내용을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다양한 시청자에게 전달됨)은 단위 당 전송비용이 낮은 효율성의 논거였다. 그러나 이런 방송의 특성은 이제 거꾸로 방송의 종언(終焉)을 언급할 때 제시되는 논거가 되고 있다. 예컨대 요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관동라 등 웹TV나 메가TV 등 IPTV(인터넷TV)를 통해 VOD(주문형 비디오)로 방송을 즐기고 있는가. 워싱턴포스트는 이미 지난 2006년 2월 TV프로그램 시청의 거의 70%가 '실시간 시청'이 아니라고 분석했다.

복잡하고 비싼 TV vs 간편하고 값싼 PC

다시 아프리카TV 얘기로 돌아가자. 아프리카를 운영하는 나우콤은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1일까지 촛불집회 방송의 누적 시청자수가 400만 명을 넘었으며 6월 1일에는 120만 명이 방송을 봤다고 발표했다. 쇠고기 촛불 집회에서는 다수의 개인들과 단체에 의해 라이브 중계가 이뤄졌는데, 이는 '와이브로(WiBro)'라는 휴대 인터넷의 공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2007년 10월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3세대 이동통신의 6번째 기술표준으로 채택한 와이브로는 2.3GHz대의 주파수를 이용해 정지, 보행 또는 시속 60km의 이동 상태에서 약 1Mbps의 속도로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게 한 광대역 무선 인터넷 서비스이다. KT는 노트북에 간편하게 꽂아 사용할 수 있는 USB형 와이브로 단말기를 무료로 제공하면서 무제한 사용의 월정액으로 2만 원대의 요금을



△ 와이브로를 활용해 현장을 생중계하는 시민들



△ 인터넷 개인방송에 촛불시위를 생중계하고 있는 B2 류신

받고 있다. 따라서 누구라도 노트북을 들고 나와 웹카메라와 와이브로 단말기를 꽂으면, 집안에서 화상 채팅을 하는 것처럼 라이브 생방송이 가능한 것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지상파 방송에서 고가의 위성송 수신시스템, 전력공급을 위한 발전기, 접시형 안테나, 모니터 장비 등을 갖춘 이동위성방송중계차인 SNG(Satellite News Gathering)가 있어야 취재 현장의 실시간 생방송을 수행할 수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와이브로에 의한 인터넷 현장 생중계는 기존 방송의 복잡하고 비싼 생중계 방식을 골려 먹기라도 하듯이 간편하고 값싼 방식으로 TV가 아닌 PC 앞의 수많은 네티즌들을 매료시켰다.

또 이 같은 개인들의 '방송 놀이문화'는 와이브로 같은 휴대인터넷의 커버리지 확대와 함께 휴대전화의 초고속 업로드 서비스 등에 의해서도 미지않아 전국적으로 확산할 것이 분명하다. 일례로 2008년 들어 SK텔레콤과 KTF가 경쟁적으로 구축하기 시작한 '고속상향패킷접속망(HSUPA)'은 휴대전화만 있으면 언제라도 실시간 개인 방송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할 것이다.

현실로 다가 온 TV의 종말

HSUPA(High Speed Uplink Packet Access)는 글자 그대로 최대 업로드 속도를 이론상으로 최대 5.75Mbps까지 높은 휴대전화의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다. 실제로는 평균 1.45Mbps-2Mbps의 데이터 업로드가 이뤄질 수 있다고 한다.이 정도의 속도라면, 휴대전화로 찍은 영상을 그대로 인터넷으로 통해 불특정다수를 향해 제공하는 '모바일 라이브 방송'이 가능하다. 앞으로는 서울뿐만 아니라 HSUPA망이 구축된 전국 어디서나 촛불집회 생중계가 같은 모바일 개인방송이 이뤄질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다. 2006년 1월 IBM은 '우리가 아는 TV의 종말(The end of television as we know it)'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굳이 2005년 2월 미국의 2대 청년인 채드 헐리와 스티브 쉐이 창고에서 시작해 설립한 '거라지 벤처(Garavage Venture)'인 동영상 공유 사이트 유튜브가 구글에 1조6천500억 원에 인수됐고, 쿼터 높은 NBC 방송이 유튜브와 손을 잡았다는 해외 뉴스를 찾아볼 필요조차 없다. 취재 현장에서 기사를 쓰면서 디지털캠코더로 동영상을 촬영해 맵핑(텍스트에 사진이나 동영상을 묶음)해 보도하고, 집에 TV는 없지만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한 '로스트(Lost)', '24 hours' 등 미드(미국 드라마)를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면서 PMP로 보는 필자에게 'TV의 종말'은 이미 현실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korpa